

## 노라조, '슈퍼맨'으로 서울 관광특구 알리기

인기 그룹 노라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관광특구 도우미로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제작해 14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 '플레이 워드 서울'에 출연, 대표 히트곡 '슈퍼맨'을 개사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명동, 이태원, 동대문 등의 관광특구가 가진 매력을 유쾌하게 소개했다. 영상에는 아이돌 그룹 고스트나인도 출연했다.



## 정의선 회장,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 위해 과감한 투자 결정

# 현대차그룹, 美 현지 전기차 생산에 8조원 투자

美공장서 아이오닉5 현지 생산 논의  
바이든 정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대량생산 체제 갖출 땐 시장 2위 전망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수주 기대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약 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내년 말까지 생산할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첫 모델인 '아이오닉 5(사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현대차 미국법인 홈페이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시장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14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5년간 74억 달러(한화 약 8조1417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달 중순경 약 1주일 간의 일정으로 로스앤젤레스(LA) 출장을 다녀왔다. LA에 있는 미국 현대차 판매법인(HMA)을 찾아 판매 전략을 검토했으며,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에 들러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인 아이오닉5 미국 현지 생산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전기차 시장 급성장... 현지 생산라인 필수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미국 생산을 결심한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우선 정책과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품 구매)' 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용차 64만 5000대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관용차량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부품 현지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 현지 투자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미국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2020년 30만대 수준에서 2025년 240만대, 2035년 800만대, 2040년 120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확대되는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현지 생산 공장 신설 계획이 아닌, 신규 전기차 생산 설비 라인에 대한 투자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브랜드 가치 향상과 판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 차량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첫 번째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유력한 후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전기차 신규 수요 창출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확고한 전동화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는 전기차 신규 수요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의 이점은 없으며 국내 공장은 전기차 핵심 기지로서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각축장인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E-GMP가 GM의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이나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와 비교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2022년 이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다면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배터리 업계도 반색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과 공장 건설을 진행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 미시간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중이며, GM과 합작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1,2 공장을 건설중이며,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 1,2 공장을 건설중이다. 또한 양사는 이미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1~3차 물량 배터리 공급사이기도 하다. 아직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급성장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현대차 E-GMP 배터리 물량 추가 수주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일상 속 흔히 생기는 '마찰화상' 간과 말고 병원 신속히 내원해야

일반적으로 화상은 열화상과 마찰화상을 비롯해 화학·방사선·전기·증기 화상 등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근래 마찰화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마찰화상은 건이나 피부가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마찰열로 인해 생기는 화상이 많다.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쏠리거나, 바닥에 손이 쏠리는 경우, 혹은 아스팔트, 시멘트 벽에 넘어졌을 경우가 해당된다. 성인 남성은 추구를 하다가 잔디에 쏠릴 때 마찰열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작업현장에서 기계에 끼이면서 마찰화상을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마찰화상은 1도 화상이 많으며 심한 경우에는 2도 화상을 입은 환자들도 관찰된다. 응급처치만 신속하게 하면 마찰화상으로 인한 상처도 덜 남게 되며 번거로운 치료를 받을 수도고 덜 수 있다.

1도 화상은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식혀 피부를 진정시켜야 하며 상처 부위가 외부 공기와 닿지 않도록 거즈나 화상 밴드로 상처 부위를 덮어야 된다. 그러나 2도 화상은 심한 경우라면 응급처치 후에 빠르게 화상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찰화상은 가벼운 화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피부 조직 성장이 덜 되었고 반사신경도 느려 표재성 2도 화상뿐만 아니라 심재성 2도 화상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응급처치를 했더라도 화상 병원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 병원 선택 시에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 의료진의 역량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 화상병원 세술외과 이하균 원장



신동빈(맨 왼쪽) 롯데 회장이 15일 롯데정밀화학 인천공장에서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박경철 롯데정밀화학 인천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

### 화학 계열사 찾은 신동빈 롯데 회장 "고부가 배터리 소재 투자 적극 확대"

신동빈 롯데 회장이 15일 화학 계열사를 찾아 고부가 소재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인천남동공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정밀화학 인천공장을 방문해 생산설비를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에 나섰다. 이곳은 식의약품 셀룰로스유도체 생산공장으로 최근 증설을 마치고 상업 생산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고기능성 셀룰로스 계열 제품의 개발 방향 등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에 있는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을 찾았다. 지난해 9월 2차전지용 양극막 생산라인 증설 작업을 완료한 곳이다. 양극막은 2차전지의 필수 소재로,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 활물질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신 회장은 "고부가 스페셜티 및 배터리 소재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서 신규사업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 1분기 실적 부활한 백화점 '빅3'...하반기 상승세 잇는다

(롯데·현대·신세계)

롯데, 영업이익 1030억으로 261% ↑  
신세계·현대도 전년비 영업이익 증가  
여행길 막혀 명품 보복소비 영향 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 외부 모습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빅3'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롯데백화점의 1분기 매출은 67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30억 원으로 261.3% 뛰었다. 현대백화점의 1분기 매출은 4974억 원으로 26.7%, 영업이익은 760억 원으로 122.3%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1분기 매출은 4932억 원으로 23.8%, 영업이익은 823억 원으로 198.3% 증가했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지 1년 만에 원래 실적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실적 상승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외여행에 쓰일 돈이 대거 명품 구매로 전환된 '보복소비'가 원인인 것으로 꼽힌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58%, 롯데백화점은 33.8%

상승했다. 또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2월 서울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 오픈 등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따른 신규 개점 효과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1분기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8월 롯데백화점 동탄점,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 개점 등 실적 상승을 견인할 호재는 준비하다. 하지만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코로나19 돌발 악재가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발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이고, 1분기 호실적이 기저효과와 보복소비 등에 영향을 받다 보니 한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배구와 야구, 프로스포츠로 손잡은 대한항공과 이마트

### 티켓 프로모션·공동구즈 개발 판매

프로배구단 점보스를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프로야구단 SSG랜더스를 운영하는 이마트는 두 스포츠단의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두 기업은 배구와 야구 종목의 시즌권 할인 등 티켓 프로모션을 비롯해 양 구단

의 BI(Brand Identity)를 담은 공동구즈를 개발해 판매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 기부금 적립과 기부 등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이마트는 항공과 유통 등 사업 분야가 다르고, 운영하는 프로팀의 종목도 다르지만 인천 지역을 프랜차이즈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천 계



양체육관이 홈경기장인 대한항공 점보스는 프로배구 V리그의 전통적인 강팀으로 20-21시즌 창단 이후 첫 통합우승을 차지

했다. 인천 연고의 SK와이브스를 인수해 창단한 SSG랜더스는 정용진 구단주의 적극적인 구단 홍보와 메이저리거 출신 출신 선수의 가세로 리그 개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다.

한편, 양사는 협약과 관련해 14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어 열린 SSG랜더스 홈경기에서는 대한항공 점보스 정지석 선수가 시구를, 임동혁 선수가 시타를 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